

일주론



임시이사회 및 정기총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월 15일 서울 하림각에서 오후 2시부터 임시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734-8050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3월 3일 열린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참여연대 신임공동대표로 추대됐다. 현재 6·10 항쟁계승사업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백일법회 봉행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3월 14일 오전 11시 '중창불사 원만성취 천일기도 백일자 법회'를 법당에서 봉행한다.(02)3218-4801



민주항쟁 사업추진위 상임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의장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이)이 2월 28일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추진위 상임대표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린포체 초청 국제보살계 봉행
법성 대구 도광사 주지스님은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국제보살계 및 소원성취기도법회'를 3월 18일 오후 1시 대구 대명동 도광사에서 봉행한다.(053-663-8583)



자비의전화 정기총회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3월 20일 조계사교육관 2층에서 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02)737-7378



민간인 성직자 위촉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3월 6일 제 37 보병사단의 민간인 성직자로 위촉돼 장병들의 종교 활동과 심성 순화를 돕는다.

“대승의 바른 믿음이 신행의 토대”

‘대승기신론’ 강의 여는 공파 스님

“원효 스님의 위대성을 백번 천 번 말하는 것보다 그 분의 사상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여서 그 사상을 살려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대승기신론 해동소 별기 강의를 원효센터(부산대연동)에서 열고 있는 공파 스님(사진)은 원효 스님의 원융, 화쟁 사상이야말로 이 땅의 갈등과 분쟁, 반목을 극복하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역설한다.

원효 전집을 펴낸바 있는 공파 스님은 강연에서도 3~4개월에 그치는 대승기신론소 강의를 1년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효 스님의 해동소·별기를 교재로 일반인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5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스님은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이 논서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한국불교 신자라면 반드시 배워 신앙체계의 토대를 바르게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아 있는 원효 스님의 저서 302권 중 가장 뛰어난 논서로 통하는 해동소에는 총 6권 중 2권까지만 해도 78권의 경, 율, 론을 인용했을 만큼 해동소 한권을 보면 전체 경율론을 꿰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 신라가 천년의 평화를 누리는 중심에는 원효 스님의 화쟁, 원융 사상이 있었다”는 공파 스님은 “시대적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해 원효 스님의 정신을 살려내는 일은 초종파적, 조국가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대승기신론소는 어렵다’는 관념 때문에 배우기를 기피하는 불자들을 향해 스님은 이



렇게 일갈한다. “어렵다고 수준을 쉬운 쪽으로 맞추어 가다보면 불교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며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원효 스님이 설했는 불교의 바다 속으로 뛰어 들 것을 권유했다. 개강은 3월 17일이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051)611-3808

천미희 객원기자

선리연구원학술상

김진우 교수 등 수상

선학원, 시상식은 6월



김문경

김진우

남무희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 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시상하는 제1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수상자에 김문경(백양사 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진우(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남무희(국민대 국사학과 강사)씨가 선정됐다. 선정 논문은 김문경씨의 ‘조선후기 백양사의 경제활동’과 김진우씨의 ‘승조(僧肇)의 비유비무(非有非無) 논증(論證)과 그 의의’,

남무희씨의 ‘원효의 유식사상과 당대 화엄종과의 영향 관계’다. 논문은 선리연구원 논총인 <선문화연구>에 게재되며 시상식은 6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여수경 기자

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수석 유기현씨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2월 25일 열린 제 1회 불교어린이지도사 고시에서 수석한 유기현씨(48, 육실컴 대표·사진).

현재 서울 화계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로 활동 중인 유씨는 “아이가 3명이나 되는 동료 교사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함께 대한불교교사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게 됐는데 많은 것을 배웠고, 수석까지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회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는 유씨는 앞으로 “포교원의 ‘찾아가는 법회’ 활동에 참여하고, 어린이 법회 후원자 모집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대불련 중앙회장에 조용석씨 ‘조직 재정비 역점’



“조직적인 것을 정비하고 데이터 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월 28일~3월 1일 대전 만불선원에서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임시총회에서 45년차 중앙회장에 선출된 조용석씨(전남대 사회학과 02학번·사진).

조 회장은 “지금 대불련의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여기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

각”한다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그러나 쉬지 않고 나아가며, 기초를 튼튼히 한 뒤 그 초석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상반기에는 새내기 포교 지원과 등록에 집중하여 조직을 재정비한 뒤 하반기에 160개 지회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방대학원대 입학식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욱)는 3월 5일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사장 윤산 스님, 정상욱 총장 및 교수진과 입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정상욱 총장은 입학전례사에서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개교한 만큼 동방문화의 학문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연구원 새봄맞이 특강



한국불교연구원은 3월 7~9일 ‘현대인의 불교’를 주제로 새봄맞이 특강을 개최했다. 원장 정병조 교수(동국대)의 특강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에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미래 불교의 관건은 ‘불교사회화’에 있다”며 “진여(眞如)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협약 체결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3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과 의료복지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대 동대문병원 원은 정기적인 무료검진서비스, 건강강좌 등을 펼치게 된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불교대 입학식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의)은 3월 6일 제13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130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1년 동안 불교 기초교리 및 역사 등을 배우게 된다. 각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타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축구단 회장 취임



대한불교원주축구단은 3월 6일 원주 성불원(주지 현각)에서 2대 원건설 회장의 취임식을 봉행했다. 지도법사인 현각 스님과 정두환 명예회장 등 축구단 소속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원건설 회장은 “스포츠포교를 위해 탄생한 원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엄불사” 시멘트의 한식조각물 성형으로 축림 불교 건축이 제작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정신의 혼을 담은 전통 죽림 불교 건축

새로운 한국 전통건축 창조에 노력하는 죽림건축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서기래양생



▲부연



▲공포



▲외삼포 조립과정



▲요사채

- ◆가치가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현장시공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익공



▲이익공

- ◆단청 불사
- ◆기와 불사
- ◆닫집, 탁자 불사
- ◆콘크리트 PC 법당
- ◆목조 건축 불사
- ◆요사채, 남골당
- ◆문중 세실 공사
- ◆문화재 보수 업체

죽림 불교 건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교동마을 204-5 TEL 031)285-5818 / H·P 010-3160-3689

설계에서 시공까지